정례브리핑

2020.8.14(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종교단체·시민단체 대표 등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남북교류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까지 하계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용 통일교육영상 짤막시리즈 개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재미와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뉴미디어용 통일교육 영상을 '짤막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소재로 제작된 5분 내외의 영상은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월 14일부터 매월 1편씩 총 5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규 개발된 영상들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오늘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수해 외부 지원을 안 받는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해피해 규모도 공개적으로 피해 규모를 밝혔는데요. 원래 통일부 입장이 수해 규모나 피해상황을 보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해, 여기에 대해서 수해지원 계획이 있는지? 북한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북한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또 북한은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그 정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제적십자사연맹발로 나온 기사를 보면 거기서는 북한에 구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한 것은 어디 외부에서 들어간 것으로 ***

<답변> 저희 국제기구에서 대북지원한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여한 게 아닌 것은 해당 국제기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 줄 사안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성 봉쇄가 일단 해제됐는데요. 이게 월북자 우리 월북하신 분이 코로나 음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성 봉쇄를 해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통일부는 어떻게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최전연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으로 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실시하였던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 봉쇄를 '전문방역기관의 과학적인 검증과 담보에 따라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언급하였고, 지난번에 재입북자, 저희 입장에서 재입북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만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그 뒤에 북한매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고, 이런 제반사항이 있지만 확실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도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북한 보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통일농사협동조합 대북 물물교환·거래에 대해서 데이터된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미국 측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물물교환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가 질문이셨나요?

<질문> 네.

<답변> 저번에 저희가 업체에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제반요건, 조건이 갖춰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반조건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 측, 대미협의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미 측과도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입장입니다.

<질문> 통일부가 앞서 연락사무소 폭파로 입은 피해액을 한 102억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일각에서 피해액을 너무 지나치게 낮게 추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보도를 보면 연락사무소 인근에 정부예산 1,558억 원이 들어간 시설물 8개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시설물의 피해 유무를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연락사무소 폭파, 청사 폭파로 인한 피해액 추산은 방금 10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나머지 인근에 있는 오늘 보도에 나온 8개 기반 시설들은 연락사무소 폭파와는 무관한 시설이고 연락사무소와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 정도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국제적십자연맹 내용 보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했는데, 사망자 현황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통일부 차원에서.

<답변> 북한매체에서 보도한 것 외에 저희가 북한 내부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매체가 아니고 국제적십자연맹에서.

<답변>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매체에서 보도, 발표한 게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 신임총리, '김덕훈 신임총리 임명이 됐다.' 그리고 '리병철도 당 상무위원회 진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리병철과 김덕훈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번 임명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리병철 위원... 상무위원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5월에 당 중앙군사위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거된 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거된 바 있고, 오늘 북한매체 보도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거되었습니다.

또 김덕훈 관련해서는 원래 당 중앙위 부장이었는데 오늘 자 보도에서 내각총리, 또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거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북한 주요 인물의 보직 변경과 관련해서 그 의미나 의도 등을 제가 예단하여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통일부가 그에 관련해서 분석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월북 1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의심이 된다고 봉쇄할 정도면, 이렇게 지원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유력하게 해석해 봐도 되지 않을지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북한이 물자를 받지 않는 게 코로나 의심,

<질문>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어떤 유력한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는지.

<답변> 오늘 북한매체에서 관련한 보도 부분에 악성비루스 전염병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원, 어떤 외부적 지원도, 큰물피해 관련 어떤 외부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것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평가·언급해 드리기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